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V):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색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이 글에서는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경험과학적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크게 네 가지 주제 즉 신뢰, 효능감, 삶의 질, 사회적 비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신뢰에 기반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신뢰의식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자로서 교사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효능감 있는 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집단효능감의 개념을 탐색하고, 청소년기 집단효능감 및 성인들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단효능감 향상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더불어 개인효능감의 측면에서는 교사효능감 및 자녀양육효능감의 개념구성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함을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교육적 성취가 삶의 질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비전을 가진 사회로 발전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세대집단별 통일에 대한 견해와 남한 및 북한에 대한 의식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적으로 합의된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교육적 성취의 맥락에서 미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기타 과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적 성취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과 이해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한국 사회, 교육적 성취, 신뢰, 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 삶의 질, 토착심리적 접근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들어가며: 미래, 그리고 효능적 신념

이 글의 핵심 화두는 미래, 그리고 인간의 효능감이다. 이러한 관심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의 능동적인 자유의지와 통제에 발휘에 대한 신념 즉 효능감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화두와 가정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미래 한국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적 노력으로서 교육적 성취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교육적 성취를 통해 추구하는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질문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착하고 있는 교육적 성취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의 미래 사회를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터한다. 당장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러한 대처를 가치있게 하고 일관성있게 하며 지향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목표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필요하다.

환경의 일방적 영향이 아닌, 환경을 통제하고 만들어 가는 효능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동안 환경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다. 환경 요인으로서 사회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나 도덕적 이탈 및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특성과 학업성취나 이탈과 같은 행동특성이 가정의 수직적인

영향, 학교의 수평적인 영향, 친구의 사각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이러한 가정 학교 친구환경 만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개념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이 사회로부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받아 내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차이(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 환경의 특성이 청소년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정책이 수립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기업의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사업장에서 구성원들의 안전효능감에까지 영향(박영신, 김의철, 박동현, 1999)을 미친다. 즉 사회 속에 전파된 특정 정책이 개인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발생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대형 사건이나 현상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IMF시대 이전과 도중과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9b)이나 이후(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경험은 부모 자녀관계나 부부관계 등과 연결된 가정생활 스트레스였으나, IMF시대(박영신, 김의철, 2000)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다른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밝혀진 점이 있다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사회 환경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에게 사회란 물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과 같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변함없이 동의하면서도, 이 글은 위와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에 대한, 또 하나의 누적된 연구가 아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환경의 영향에 대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출되어 질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 글의 시작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혔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심리 행동 특성들에 대한 종합 정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환경으로서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가정하고, 인간의 행동이 환경과 심리라는 삼자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결과라는 사실을, Bandura(1997)는 자신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한 저서에서 심리학적으로 명쾌히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Kim(1999)은 문화라는 구인과 결부하고 확장하여, 미래 심리학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으로 토착심리학의 철학과 기여에 대해 논의(Kim, Yang, & Hwang, 2006)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환경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초점을 둔다.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구성하고 있는 각 사회는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현상들이 있으며 그것은 역사 전통 관습 문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토착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적 성취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둔 한국 사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특징은 교육열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지대한 교육적 관심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모든 발달단계에서 드러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열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입시생들과 이를 지원하는 학부모,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대학원 박사취득자 수, 해외조기유학(권미경, 이순형, 2007, 김영희, 2005) 및 기러기 아빠 현상(박영신, 김의철, 2004),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만학을 하는 평생교육의 현장, 어렵게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때 그 이유가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려운 가정의 우수한 학생을 돕고 싶다는 열망 때문인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매우 뿌리 깊은 염원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사회현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의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

를 들어 자녀 수의 경우에, 국가가 가족계획을 주도하여 피임을 적극 홍보하던 일이 불과 20년 전인데, 이제는 낮은 출산률로 인해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자녀 수의 변화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자녀가치(Kim, Park, Kwon, & Koo, 2005)에서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노후부양의 기대에서도 변화가 크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와 지원 등의 면에서 볼 때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예컨대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격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변화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가고 있는 가치들도 더불어 확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교육적 성취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미래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교육적 성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탐색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현실 상황보다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목표로서 한국 사회의 청사진에 주목한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적 성취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점검 및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적 성취의 원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라든가, 이

에 더하여 친구관계와 교사학생관계(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특성(박영신, 김의철, 2003) 등,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분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취가 종속변인이었다면, 이 글에서는 성취를 독립변인과 같이 상정함으로써 시각을 달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성취를 독립변인으로 이해하였을 때 종속변인으로 여러 가지가 가정될 수 있다. 예컨대 성취를 통한 미래 개인의 삶의 목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교육적 성취를 통해 구축해 나가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것은 보다 거시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성취를 통해 단기적으로 이루는 목표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부를 잘 해서 대학입학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요약하면 이 글에서는 미시적 개인적 단기적인 교육적 성취의 결과보다는, 거시적 사회적 장기적인 교육적 성취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에게 현실만 있고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때로 절망적일 수도 있고, 때로 방향상실적일 수도 있다. 미래 인식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가치로운 방향의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교육적 성취를 통해 구성하려는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한 탐구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의 목적과 내용

한국 사회가 경제,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박영신, 김의철, 2008)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성공이 교육적 성취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교육적 성취의 결과만을 누적하기에도 급급한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더 큰 성취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점검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비전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러한 점들을 몇 가지 여기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이 글은 경험과학적인 증거에 토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교육적 성취를 통해 구축해 나가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선택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변적이기보다는 경험과학적인 증거에 토대하는 것을 선호하고, 가능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에 기초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현재의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에 토대하여 미래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즉 현재와 현실의 이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이상의 추구에 더 비중을 두고 현실의 현상들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즉 밝혀진 경험과학적 자료에 토대하여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과 성취를 생각해 보는데 이 글에서의 관심이 모아진다.

그림 1에서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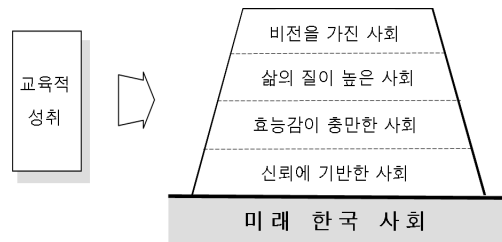


그림 1.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 청사진

사회에 청사진을 제시해 보았다. 교육적 성취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가 갖추어 나가야 할 모습 중에 크게 네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즉 신뢰에 기반한 사회, 효능감이 충만한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사회, 비전을 가진 사회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 기관에 대해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들이 효능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효능감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 하는 집단들의 집단효능감 및 사회전체적인 집단효능감 차원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토대하여 결국은 사회 전체가 의미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교육적 성취를 통해 추구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 네 가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여러 모습 중에 이러한 네 가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네 가지는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에 토대하여 시사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며, 이 외에도 실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련된 경험과학적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

토함으로써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 보기로 한다.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

신뢰에 기반하는 사회의 형성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

Yamagishi(1998)는 일본에서의 사업 관행을 통해 일본 사회에서 신뢰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거래상대와 우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신뢰관계를 형성하면 일일이 성가신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도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일단 신뢰관계가 성립되면 강한 협력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Yamagishi(1998)는 일본과 같은 형태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안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신뢰가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집단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안심하지만, 모르는 외집단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료에 대한 안심과 내집단이 아닌 타인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신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폐쇄적 집단주의적 안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본 사회가 미래에는 개방된 기회중시형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관계의 틀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Yamagishi(1998)는 보았다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Yamagishi (1998)가 일본 사회에서의 신뢰현상을 조망하는 시각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가까운 내집단에 대해서는 안심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고 기회자세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내집단 편애주의가 집단구성원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소통을 통한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내집단은 혈연, 학연, 지연 등 강한 연고주의를 통해 형성된다. 같은 혈통을 잇는 집안 사람이라든가,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라든가, 고향이 속한 지역이 같아든가 등의 다양한 연고로 관계가 맺어지고 유대가 형성되며 집단이 구성된다. 내집단은 외부 세계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 되고,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의 기회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돌보아 주는 과정에서 공과 사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기 쉽다. 잘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인정적인 배려가 될 수 있지만, 내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될 수 있고,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이 본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을 면접하여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나타난 결과들 즉 현상이나 성과 등 결과적 사실 중심의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또는 한국 사람들이 지각한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

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표상에 대한 질적 분석, 양적 분석을 시도한 경험과학적 자료에 토대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을 해 보기로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과 같은 영역별로 학생과 성인 집단이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정치에 대해 잘하고 있다든가 희망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불과 극소수(5.5%)였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믿을 수 없다든가 한심하다 혼란스럽다와 같이 불신한다는 태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39.3%)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정치인 자질부족(14.7%), 부정부패(13.7%), 파벌주의(9.2%)와 같은 반응이 각각 10% 내외의 반응율을 보였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발전할 것이라든가 잘 되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이 정치보다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비율(15.1%)에 머물렀다. 반면에 불안정하고 위태롭다와 같이 불안의 표상이 가장 높은 반응율(30.4%)을 나타내었으며, 그 외에 불경기(20.2%) 구조적 문제(11.5%) 불평등(9.5%) 비관적(8.4%)과 같은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발전가능성, 살기 좋음, 정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21.8%)들이 있었으나, 그 외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들로 구성됨으로써 역시 부정적인 지각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지각 중에 부정부패(22.7%)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으며, 급격한 변화(16.5%) 불안(9.9%) 빈부격차(6.5%) 이기주의(5.8%) 보수적(5.0%) 연고주의

(4.7%) 기타 부정적인 반응(7.1%)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 사회에 대해 불신한다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불신의 이유를 기록하게 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정치인 불신(30.3%)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비리(22.7%), 공공기관 불신(15.9%), 경제적 불안(12.8%) 이기주의(7.9%) 강대국의 영향(3.3%)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보다는 부정적인 지각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부정적인 지각의 핵심에 부정부패라는 생각이 있었으며, 연고주의나 파벌주의에 대한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정치 불신이 강하였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표상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마찬가지였다.

이상의 질적 분석(김의철, 박영신, 2004)을 통해 밝혀진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을 토대로 양적인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5)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인을 연고주의, 부정부패, 불평등, 불안, 보수성으로, 긍정적 인식의 변인을 발전가능성, 자유로움, 민주적, 선진강대국,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답지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모든 변인들 즉 연고주의 부정부패 불평등 불안 보수성에 대한 응답들은 그렇다는 긍정적인 평균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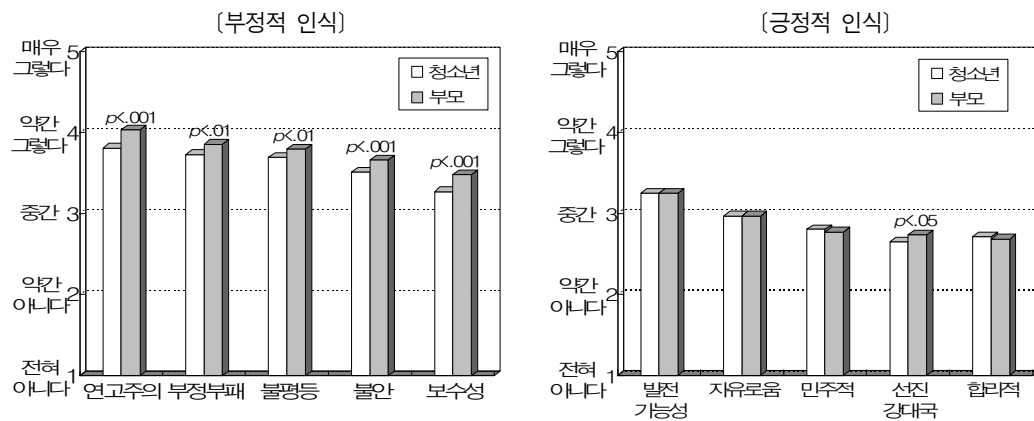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사람이 지각하는 한국 사회: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5)

응을 보인 반면에, 긍정적인 인식의 변인 중에는 발전가능성만 중간을 약간 넘고, 나머지 변인들 즉 자유로움 민주적 선진강대국 합리적 변인은 모두 중간 이하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의철과 박영신(2004)이 질적인 분석을 통해 밝힌 결과들을 일관되게 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에서 연고주의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부정부패가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에 의해 움직여진다는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 또한 선행연구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와 일관된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들(김의철, 박영신, 2004; 박영

신, 김의철, 2005)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지각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5)이 초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집단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을 보면, 거의 모든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중간정도에서 약간 아니다 수준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어떠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신뢰수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나 정당에 대한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정치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질적 분석(김의철, 박영신, 2004)하였을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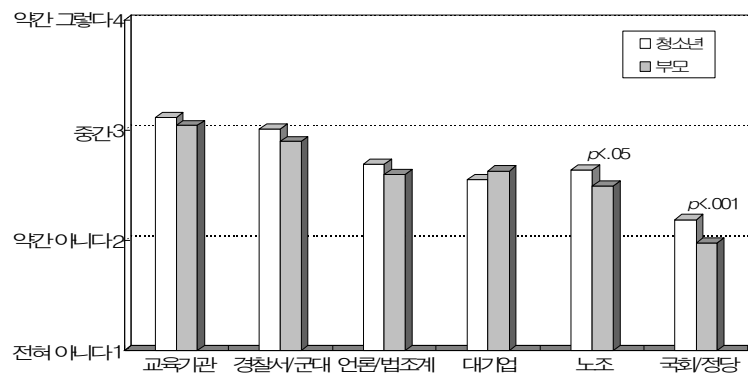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5)

는 반응이 가장 많았던 사실과 일치한다.

따라서 그림 3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관이든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에 대해 신뢰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와 관련된 조직으로서 국회나 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의 극단적으로 낮은 이들 기관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며 신뢰수준이 낮음으로써 한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지각을 확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낮은 신뢰 수준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교육을 통해 추구해 나가야할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할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사회와 집단 분위기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이기 때

문에, 신뢰에 기반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시민의식이 증진되고 조직과 집단에 상호 신뢰가 있어야, 구성원들이 사회를 신뢰롭다고 지각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신뢰로운 사람으로 형성하는 것은 신뢰로운 사회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가 신뢰로운지 여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글의 앞 부분에서 Yamagishi가 분석한 일본 사회 모습의 단면을 잠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해 볼 때 한국 사회도 내집단 편애로 인한 폐쇄적 안심은 충분하나, 외집단에 대한 개방적 신뢰수준은 낮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연구주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결과들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내집단 편애에 머무르기 보다는 신뢰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지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교육적 성취를 통해 신뢰에 기반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재산이고, 한국 사회의 희망은 인재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적 성취를 통해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를 보다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 유지

한국 사회에서의 높은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보다도 학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 학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측면이 매우 많은데, 여기에서는 신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사회적 기관들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중간 이하의 신뢰수준을 보였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는 중간 정도를 유지(박영신, 김의철, 2005) 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 청소년과 부모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떤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들에 비해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청소년이든 성인 세대든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세대집단을 막론하고 한국 사람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교육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학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학교는 다른 어떠한 사회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하며, 이것이 교육적 성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인 교육기관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기관으로서 학원도 교육기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의식이 어떠한지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 그림 4는 초 중 고 대학생 시기에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6b)이다.

그림 4를 보면, 가정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정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 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소년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과 대조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보이는 기관은 정당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에 대한 신뢰수준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경찰서 법조계 언론사 대기업과 같은 대표적인 기관들에 대한 신뢰수준도 모두 초등학생보다는 중 고 대학생 집단으로 갈수록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 수준별로 가정에 대한 신뢰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른 모든 기관에서는 매우 차이가 컸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나 학원에 대한 신뢰도 학교수준별로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나 학원에 대한 신뢰수준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집단으로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초 중 고 대학교 집단별 학교에 대한 신뢰에서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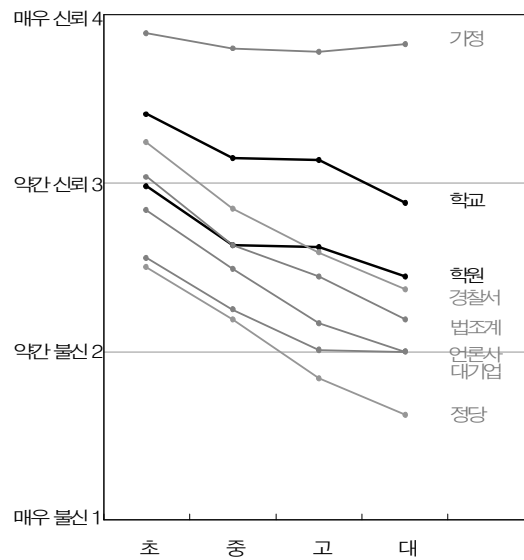


그림 4. 청소년기 한국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6b)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중 고등학생은 동질집단으로서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대학생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신뢰의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생이 높으며,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 중 고 대학교 집단별 학원에 대한 신뢰에서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중 고 대학생은 모두 동질집단으로서 초등학생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학원에 대한 신뢰의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시기부터 시작하여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초등학생보다 낮은 신뢰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학교에 대한 신뢰가 학원에 대한 신뢰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였다.

그림 4에서 밝혀진 결과들 중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가정에 대한 신뢰를 제외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 중에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원에 대한 신뢰는 비록 초 중학생 단계에서는 경찰서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보다 낮았으나, 고등학생 시기에서부터는 경찰서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보다 높은 신뢰를 보였다. 즉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 다음으로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 단계를 거쳐 대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다. 교육기관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고, 대학생들이 가

장 낮은 신뢰를 보인다는 점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아동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낮아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남는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이 증가될수록 감소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을 통해 무언가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낮아지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증진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수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를 구성하는 관리자로서 교장 교감이

나 교육실천가로서 교사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의 구성원들, 또한 학생들의 학부모들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모색에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에 대한 신뢰 형성

그림 4에서 청소년집단의 한국 사회의 기관들에 대한 신뢰의식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기관의 조직 구성원 즉 사람들에 대해 청소년집단은 어떠한 신뢰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의식의 분석결과는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는 박영신과 김의철(2006b)의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청소년기 동안에 각 집단별로 사람에 대한 신뢰의식이 어떠한가를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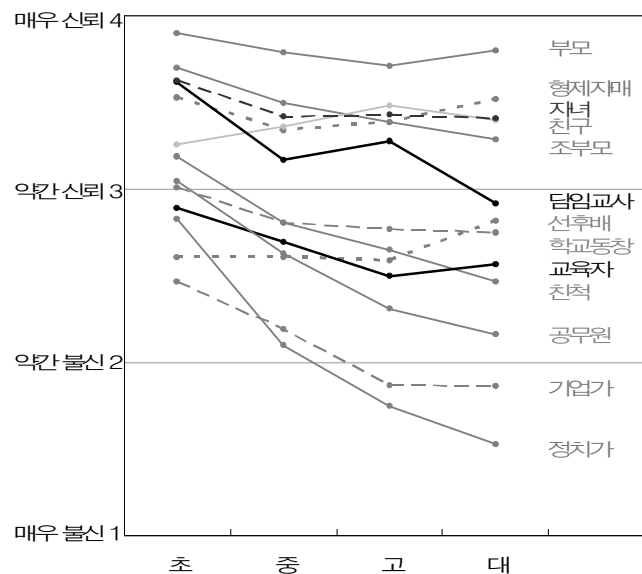


그림 5. 청소년기 사람에 대한 신뢰: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6b)

결과이다. 그림 5를 보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뢰’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였다. 그리고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와 같이 가족에 대한 신뢰들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친구에 대한 신뢰도 거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신뢰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으로써, 청소년기에 친구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들 및 친구에 대한 신뢰는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담임교사, 선후배, 학교동창, 교육자와 같은 학교 및 교육에 관련된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후배에 대한 인식은 초·중·고등학교 시기까지는 별로 없다가 대학생 집단에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신뢰를 보이나, 중·고·대학교 집단으로 갈수록 급격히 신뢰수준이 하강하여 대학생 집단에서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신뢰보다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군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기업가, 정치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집단으로 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대학생 시기에는 매우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특히 정치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기업가나 선후배보다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나 중학교 시기부터 제시된 13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특히 대학교 시기에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신

뢰수준을 보여, 거의 ‘매우 불신’하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결과를 그림 4의 결과와 연결하여 볼 때, 청소년들이 가정과 부모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높고, 정당이나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과 부모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집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정당과 정치가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 시기에 어느정도 신뢰수준을 유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서부터 계속 급강하하여,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난 결과들 중에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 외에 이 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점은, 담임교사 또는 교육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것이다. 첫째 담임교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들 수 있다.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를 보면, 부모나 기타 가족들에 대한 신뢰보다는 낮지만, 선후배나 동창 심지어는 친척에 대한 신뢰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가 공무원이나 기업가 또는 정치가에 대한 신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나 조부모 다음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형제자매나 친구에 대한 신뢰보다도 더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자에 대한 신뢰의 경우는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수준보다 낮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나 기업가 또는 정치가에 대한 신뢰보다는 훨씬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한다.

둘째로는 학교수준별 담임교사 또는 교육자에 대한 신뢰의 감소현상을 들 수 있다.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를 학교수준별로 사후검증을

했을 때,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 고등학생이 동질집단으로서 그 다음 수준이며,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물론 여기에서 대학생은 담임교사가 아니라 담당 교수에 대한 신뢰를 응답한 것이다. 교육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며,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동질집단으로서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초등학생 시기에는 담임교사나 교육자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만, 대학생이 되면 교수나 교육자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밝혀진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나, 그림 4에서 밝혀진 학교에 대한 신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교육자나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욱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자나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교육적 감화를 제공하는 모델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모델이 되는 지도자의 부재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교사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한국 청소년의 교사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업지도,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 아껴주고 관심있음, 존경함, 상담과 인성지도, 부모와 같은 존재,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이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학생 이해와 사랑, 성실함, 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에 토대하여 청소년이나 학부모 및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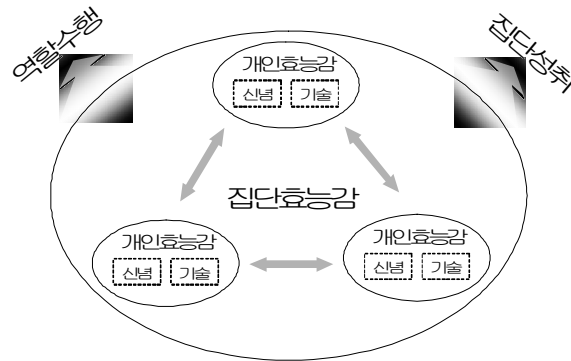
효능감이 충만한 사회의 형성

집단효능감의 향상

Bandura(1997)는 학업이나 운동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건강의 획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인간 행동에 있어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그러한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고,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검증했다. 그리고 조직이나 집단의 성취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효능감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인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나 구체적인 측정 등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과제를 남겼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는 전혀 문화적 뿌리가 다른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에서는 더욱 집단효능감과 같은 구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 Bandura(1997)에 의해 그러한 개념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을 뿐, 집단효능감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탐구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집단효능감을 그림 6과 같은 형태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물론 아직은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



으로 지속적인 개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집단효능감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선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집단효능감은 집단 전체의 시너지로 나타나는 효능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은 물리적으로 여러 개인들을 요소로 하여 구성이 된다.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개인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이미 Bandura(1997)에 의해 제안된 바처럼 신념과 기술의 복합적 산물(Kim & Park, 2008)이라고 정의 내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효능감들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너지가 발생되게 된다. 즉 집단효능감이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의 단순 합이 아니라, 자기효능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까지 부가된 통합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시너지는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효능감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모두 구현될 수

있는 양 방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에너지화된 집단효능감은 현실적으로 집단에서의 역할수행과 집단의 성취라는 두 측면으로 표면화될 수 있다. 측정을 하고자 하였을 때, 집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각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집단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집단이 집단효능감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집단효능감을 나타내는 데 있어 가장 오류가 적을 수 있는 하위변인으로서, 여기에서는 개인이 집단에서 하는 역할수행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루어내는 실제적인 성취의 측면도 집단효능감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박영신과 김의철(2006b)은 청소년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집단효능감을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즉 가정에서의 집단효능감 하위변인으로는 가족집단성취효능감과 가족역할수행효능감을, 학교에서의 집단효능감 하위변인으로는 학급집단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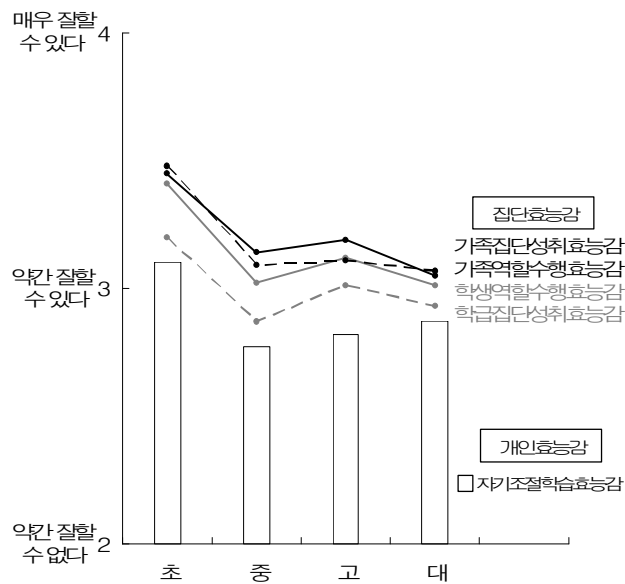


그림 7. 청소년기 집단효능감: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6b)

효능감과 학생역할수행효능감을 각각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4개 하위변인들의 반응 패턴이 거의 유사하였다. 즉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은 현저하게 낮고,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약간 높으나, 대학생은 다시 낮은 패턴을 보였다. 통계적인 유의도 검증 결과를 보면, 가족역할수행효능감과 학생역할수행효능감에서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 고 대학생 모두 동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중 고 대학생보다 가족으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역할수행을 잘 하는 집단효능감이 높았다. 가족집단성취효능감과 학급집단성취효능감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나머지 세 집단이 모두 동질적이지 않고 고등학생

이 중학생보다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이나 학급의 성취를 위한 집단효능감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높았으며, 중학생과 대학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초등학생의 집단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대상에게 개인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측정(그림 9 참고)하였을 때,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사후 검증 결과 다른 세 집단은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경우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집단효능감 하위변인의 평균이 모두 자기조절학습효능감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집단효능감의 값들이 4점 척도 상

에서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자기효능감보다 높은 집단효능감을 갖고 있으며, 집단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한 번의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6b)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집단효능감 개념모형의 발전과 정확한 조작적 측정 등을 통해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¹⁾를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림 7은 집단효능감 중에서 한국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청소년기 집단효능감의 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 그러한 성취를 유인하는 심리변인으로서 개인효능감만이 아니라 집단효능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성인들의 집단효능감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예로서 정치효능감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Kim, Helgesen과 Ahn(2002)이 한국과 덴마크 성인의 정치효능감, 신뢰의식, 리더십 및 가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8을 보면, 한국 성인이 덴마크 성인보다 의미있게 낮은 정치효능감을 나타내며, 정치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 모두

훨씬 낮았다. 반면에 지도자의 도덕성과 강한 리더십, 그리고 자기수양의 가치지향 및 가족 가치지향에서도 모두 한국 성인의 평균이 더욱 높았다. 그러므로 한국 성인이 덴마크 성인보다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나 기관에 대한 신뢰는 현저히 낮으나, 지도자가 도덕적이어야 하고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더욱 높았다. 그리고 한국 성인들이 더욱 이상적 사회는 가족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자기수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덴마크 성인에 비해 한국 성인들이 보인 낮은 정치효능감이란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든가, 정치는 매우 복잡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든가, 공무원들이 본인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들이 정치에 대한 개인효능감 뿐만 아니라 집단효능감도 매우 낮고 무력감을 더욱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 성인들은 덴마크 성인들보다 정치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Kim, Helgesen & Ahn, 2002) 되었다.

한국 성인들의 이러한 낮은 정치효능감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의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높은 집단효능감을 나타내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높은 집단효능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실적인 증거들이 있다. 예컨대 2002년 월드컵 축구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 국민 전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붉은 악마’가 되어 한국 팀을 위한 응원에 몰입하였다. 2002 월드컵 축구에서 국민 전체가 한국도 축구 강국에 포함될 수 있고

1) 가족역할수행효능감($\alpha=.85$, 문항 예: 당신은 가정에서 아들/딸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가족집단성취효능감($\alpha=.85$, 문항 예: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습니까?), 학생역할수행효능감($\alpha=.79$, 문항 예: 학생으로서 당신은 학교에서 맡은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학급집단성취효능감($\alpha=.94$, 문항 예: 우리 반의 학습태도가 좋아지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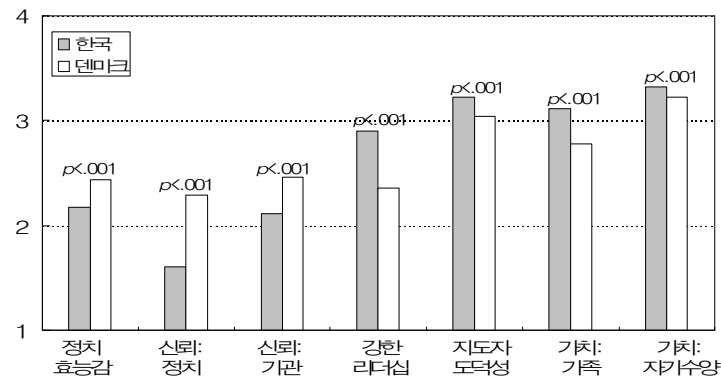


그림 8.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과 가치: 한국과 덴마크 비교

출처: Kim, Helgesen & Ahn(2002)

또 그렇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선수들에게 보여준 국민적 지원과 열의는 대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적 결속이 행동화된 특별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한국이 우수한 성적을 획득함으로써, 이러한 성공경험은 한국 사람들의 집단효능감을 더욱 증진시키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처음에 실시되기 시작할 때는 그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으나 현재 국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이 국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뿌리를 내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인 성취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 차원에서의 집단효능감을 체험하고 강화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누적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성취현상들, 학업성취 또는 직업적 성취의 이면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향해 전력투구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된 가정에서 성취하

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 갔다. 그러한 일탈청소년들의 효능감을 증진(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하고, 이러한 일탈청소년을 지도 관리하는 교사들의 효능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재해 감소를 위해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효능감을 증진(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 시키는 일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집단효능감이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청소년기 동안 집단효능감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등은 후속연구과제로 남는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종단 자료가 아니고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한국 성인의 집단효능감을 정치효능감과 관련된 결과에 토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집단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누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집단효능감과 관련된 경험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우선 조작적 정의가 명료화되고, 나아가서 도구 개발의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성인집단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성인집단의 집단효능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집단효능감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결집되어 어떠한 성취들을 집단적으로 이루어 내는가 하는 것은 가능성의 세계이며,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측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차원에서의 효능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효능감의 향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효능감을 위한 재교육

학업성취와 관련된 맥락에서 자기효능감이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먼저 연상될 것이다. 물론 학업성취의 당사자로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주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이 보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자

기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핵심 변인으로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비해 학생들을 교육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연구들이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다.

교사효능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를 위해, 자기효능감 구인을 처음으로 제안한 Bandura(1995)가 교사효능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측정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 9에 소개한 하위변인들은 Bandura(1995)가 정의한 교사효능감 개념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Bandura(1995)가 제안한 총 7개 교사효능감 하위변인들에서 한국 교사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박영신, 1997)한 결과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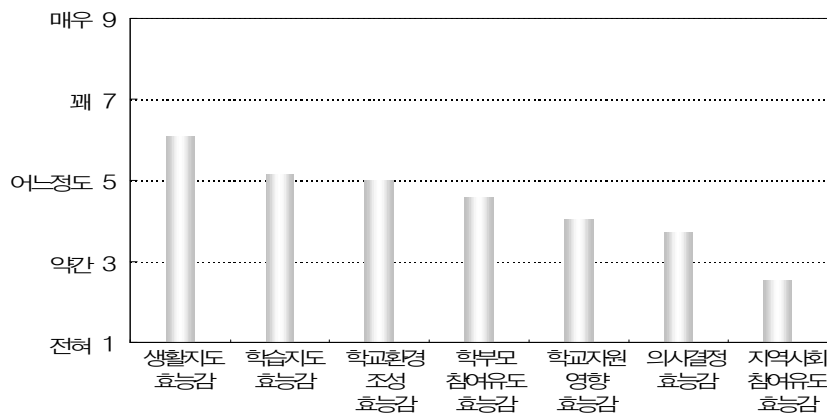


그림 9. 교사효능감의 구성과 특징

출처: 박영신(1997)

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9를 보면 생활지도 효능감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효능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습지도효능감의 평균이 높고, 학교환경조성효능감도 5.00 이상의 유사한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습지도를 잘 할 수 있다는 효능적 신념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효능감도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부모참여유도효능감, 학교자원영향효능감의 순서로 나타났고, 의사결정효능감은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지역사회참여유도효능감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즉 한국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에 관련된 효능감은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효능감을 보였다. 물론 교육에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학교의 자원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또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와 관련된 효능감보다 낮았다.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적 성취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효능감 중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련된 효능감보다 취약한 지역사회나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들의 개인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교사로서 직업적 역할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사효능감의 두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허희숙, 예

정)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으로는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이 의미있는 하위변인으로 선별되었고,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서는 학습지도효능감, 생활지도효능감, 학교환경조성효능감, 업무처리효능감이 제안되었다. 다른 연구(박은실, 김의철, 박영신, 2007)에서는 교사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으로 자기조절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이, 교사효능감으로 위의 네 하위변인이 모두 통합되어 분석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독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교사효능감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직무성취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자기조절효능감은 두 번째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로서의 직무성취를 위해 교사효능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한편 교사효능감이 어떠한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들이 연수를 받기 전과 연수를 받은 직후, 그리고 연수를 받은 뒤 3개월 후의 시기에 단기종단분석(Park & Park, 2006;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허희숙, 예정)을 시도하였다.

그림 10에서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수받기 전 단계에서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교사효능감은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도는 교사효능감 외에도 학교관리자의 사회적 지원이나 직무성취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연수 전 단계나 연수 직후나 연수 3개월 후의 교사효능감은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연수 3개월 후 단계에서 교사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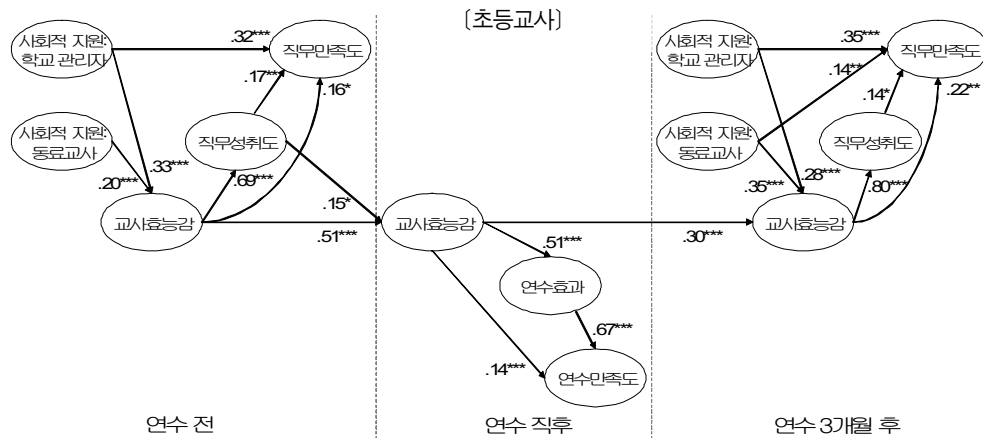


그림 10.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출처: Park & Park(2006)

같은 학교관리자와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교사효능감은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도는 교사효능감 외에도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및 직무성취도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사효능감은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부모나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결과와도 일관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사들과 같은 성인들도 사회적 지원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더불어 직무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만이 아니라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동일한 이론모형을 갖고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허희숙, 김의철, 박영신, 2007)는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그림 10 참고)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수 전 단계와 연수 3개월 후 단계 모두,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교사효능감을 증진하였으며, 교사효능감은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교사이든 중등교사이든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이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형성된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성취도와 만족도가 교사효능감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들의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직무성취도가 바로 학생들에

대한 성공적인 지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성공적인 생활지도 등 교사업무에 대한 성취와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교사들의 효능감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효능감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해 교사 연수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 교사들에 대해 많은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연수가 실제로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연수시간만 양적으로 채우는 것이나 연수 후의 지필검사에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수를 통해 교사가 실제로 효능감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교사효능감이 획득 또는 강화되어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만이 아니라 직무성취도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양적인 연수시간을 채우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적을 지필검사로 상대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연수 전후 교사들에게 진정으로 어떠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기초한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의 핵심개념으로 교사효능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녀양육효능감의 증진

위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를 위해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교사의 효능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교사효능감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그림 10 참고)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학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Bandura(1995)는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변인 9개를 제안하였다. 9개 중에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와 관련된 하위변인은, 자녀위험행동지도효능감, 자녀학업성취지도효능감, 자녀행동관리효능감, 자녀여가활동지도효능감의 4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하위변인이 2개로서 학교체제영향효능감, 학교자원영향효능감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하위변인으로 지역사회지원유도효능감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과 관련된 효능감 하위변인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스트레스관리효능감을 포함하였다.

Bandura(1995)가 제안한 자녀양육효능감 질문지를 어머니 집단에 실시한 연구(박영신, 1997) 결과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하위변인은 자녀위험행동지도효능감이었고, 이어서 높은 평균을 보인 하위변인 네 개 모두 자녀에 대한 지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효능감들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값의 하위변인은 지역사회지원유도효능감으로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교육적 지원을 받아내는 효능감은 매우 낮았다.

그림 11에서 밝혀진 결과를 정리해 볼 때,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직접 지도하는 효능감은 매우 높아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긴밀히 맺고 필요한 영향을 주고 또 적절한 도움을 받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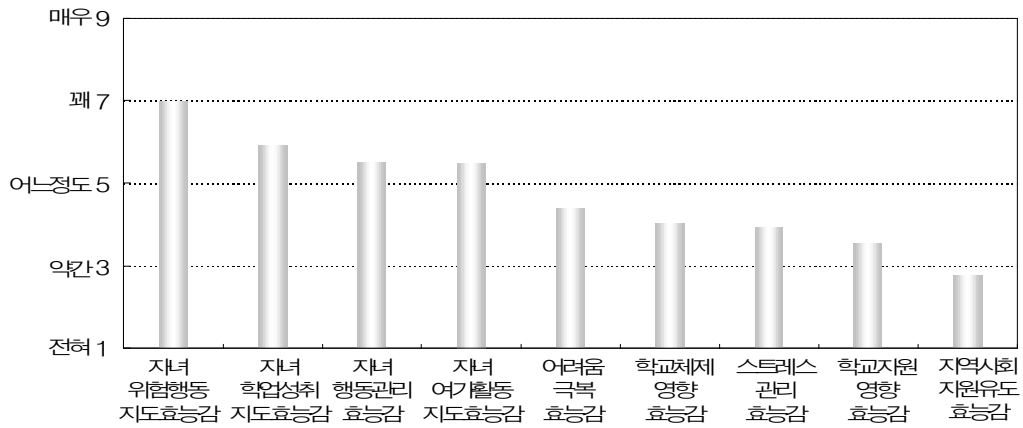


그림 11. 어머니 자녀양육효능감의 구성과 특징

출처: 박영신(1997)

는 그러한 효능감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양육하고 지도하는 효능감은 매우 높지만, 교육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슈화하여 적절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학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효능감은 상당히 낮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은 높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맺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거시적인 교육적 지도에 관련된 효능감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효능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켜 자녀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높은 자녀양육효능감을 갖고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해 나간다면, 자녀의 성취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의 효능감이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의 학업성취나 생활지도에 직접 관여하는 효능감만 높고,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통해 교육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적 지원을 극대화하는 효

능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효능감이 더욱 개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회의 형성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 현주소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은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질적으로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교육을 받는 이유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순수한 지적의 즐거움과 인격적 성장에도 있겠지만, 본인의 삶의 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뿐만 아니라 보다 가치로운 방향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보다 상당부분 결부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교육 자체의 목적적 가치만이 아니라 교육이 갖는 수단적 가치도 있으며, 교육적 성취가 개인이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

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삶의 질이 향상된 상태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도해 보기로 한다. 삶의 질을 한국 사회 또는 개인의 측면에서 조망했을 때, 공통점도 있겠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검토해 보면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a)이 한국 사회 및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자유반응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초, 중, 고, 대학생들이며 또한 그들의 부모를 표집하였다. 청소년 경우에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은 반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국민적 근면, 단결력, 노력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교육수준, 올바른 정책이 지적되었다. 부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들의 노력, 문화/여가생활로서 청소년과 동일한 순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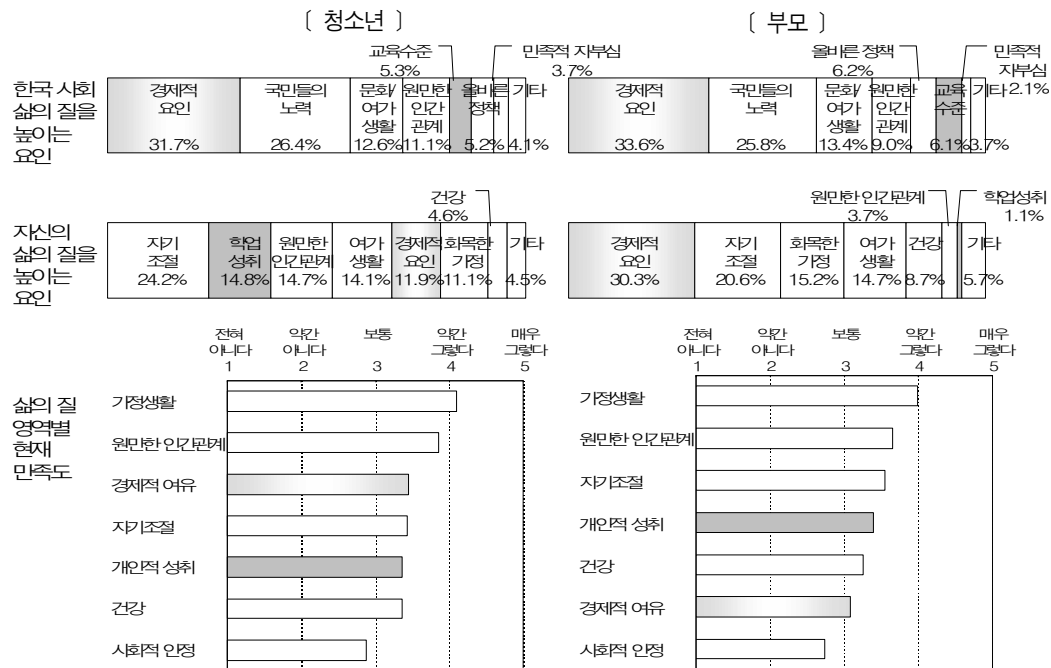


그림 12. 청소년과 부모가 추구하는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6a); 박영신, 김의철(예정).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 여가생활,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학업성취와 같은 요인들이 부각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예정)은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2006a)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위변인을 가정의 화목, 경제적 여유, 원만한 인간관계, 개인적인 성취, 건강, 자기조절, 사회적 안정의 7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 하위변인들을 측정하는 양적 질문지를 제작하여, 응답자들의 만족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질 영역별로 현재 만족한 정도에 대해 청소년들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여유, 자기조절, 개인적인 성취, 건강에 대한 만족이 보통 이상의 수준은 되었으며, 사회적 안정과 관련하여서는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서 부모들의 경우에도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자기조절, 개인적인 성취, 건강, 경제적 여유의 순서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안정과 관련하여서는 보통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첫째, 한국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 수준을 지적하였다. 즉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요인으로 청소년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자기조절의 태도 다음으로 학업성취가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즉 청소년들 경우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이 자유응답한 결과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 한가지만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서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적인 성취의 결과는 직업적 성취와 연결됨으로써 교육의 수단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림 12에서 청소년의 부모들은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나 자기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청소년들도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비록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핵심요인으로 포함되고 있었다. 어떤 부모든 자녀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가정해 볼 때, 결국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전념함으로써 결국 그러한 교육의 결과 자녀 미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개인의 경제력과 사회의 경제성장이나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정받는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얻고 결과적으로 자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장선 상에서 사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가정

은 추후에 경험과학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셋째,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의와 자유가 확립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림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현재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가정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사회적 안정과 관련된 삶의 질은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차원에서의 삶의 질은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나 윤리의 확립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낮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즉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아직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사회라고도 인식하지 않으며, 하고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라고도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교육적 성취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할 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를 한다.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의 터전은 가정과 학교이다. 그런데 초등학생에서 중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특별히 인문계 고등학생 경우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6a)를 초, 중, 고, 대학생 집단별로 정리한 것이 그림 13이다.

그림 13에서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보면, 초 중 고 대학생 모든 집단에서 친구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높은 반응율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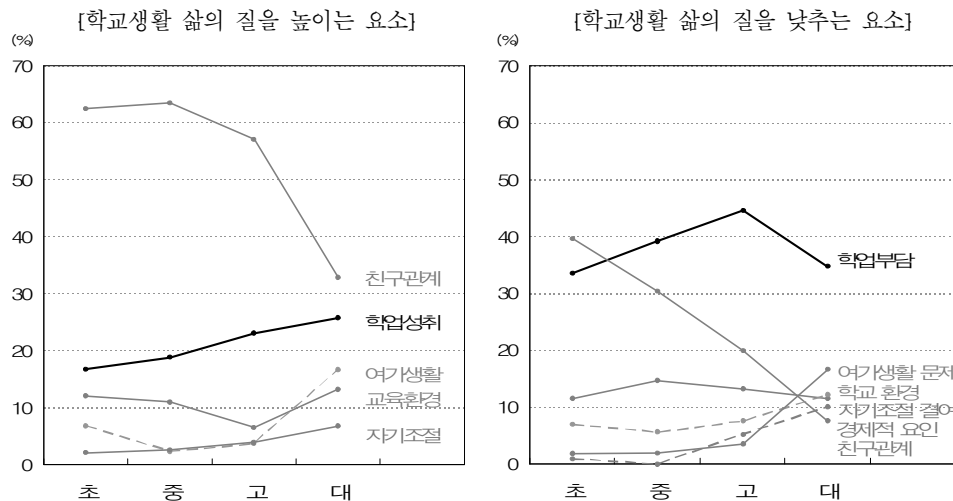


그림 13.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6a)

였고, 두 번째로 학업성취가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여가생활, 교육환경, 자기조절과 같은 범주들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친구관계에 대한 반응율이 대학생집단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학업성취에 대한 반응율은 오히려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대학생 시기가 되면 점차 감소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업성취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를 보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친구관계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부담이 두 번째로 지적되었으나, 친구관계는 계속 하강하는 패턴을 나타냄으로써,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학업부담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여가생활의 문제는 고등학생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생에서는 학업부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한국의 초·중·고 대학생집단에서 공부의 부담이나 시험 및 과도한 숙제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친구와의 갈등이나 싸움 등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하였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핵심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 학생들의 학교생활

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학업문제는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는 결론이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학교생활의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학업에서의 성취는 학교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번째로 대표적인 요소였다(그림 13 참고)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림 13에서 고등학생 집단은 일반계와 실업계를 합하여 평균을 낸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학업부담에 대한 반응율이 훨씬 높았다(56.2%). 이는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된 결과가 그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학생들의 학교생활 삶의 질이 학업에 의해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학업적 성취를 하지 못해도 다른 면에서의 다양한 성취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의 기준과 교육환경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가 일차원 상에서 연속되는 동일 속성의 양극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3에서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는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가 중요하였다면, 학교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는 학업부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친구관계가 좋으면 학교생활 삶의 질이 높고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생활 삶의 질이 낮으나, 중학생 이후부터는 학교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친구관계

보다는 학업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응답자들이 많음으로써,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이 차지하는 순서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

여하튼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는 극대화시키고,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는 극소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박영신, 2007)의 탐색과 실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

한국 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생활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IMF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시점이 1997년 12월인데, 그 당시에 계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던 국민들은 사회전

체가 급속도로 위기에 처하면서 구성원 전체가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서부터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2001년 8월까지를 IMF시대로 명명했을 때, 그림 14의 왼쪽은 IMF시대 이전, 오른쪽은 IMF시대 이후에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 생활사건을 응답한 반응들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 두 시기에 연구된 표집대상은 다른 학생들이었고, IMF시대 이전의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7)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표집하였으나 IMF시대 이후의 연구(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서는 초·중·고 대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 제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자유반응형으로 응답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이 두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생활사건은 학업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친구관계나 인간관계, 가정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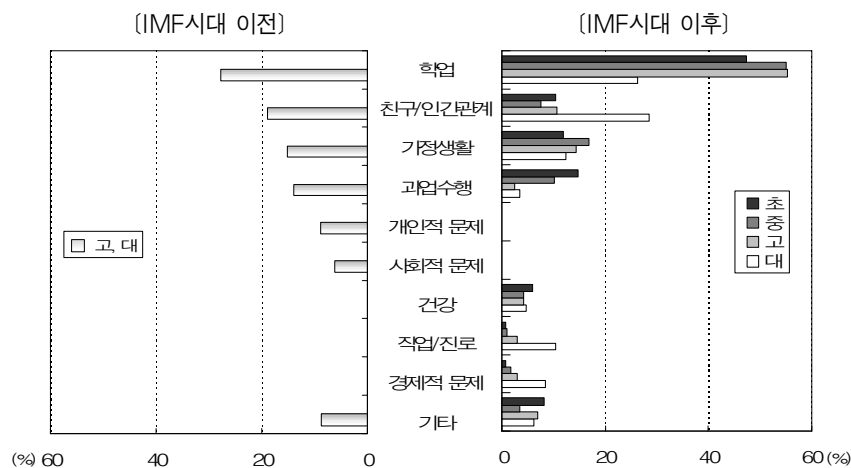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 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생활사건

출처: 김의철, 박영신(1997);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2002)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학업스트레스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가 IMF시대를 경험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무수히 밝혀져 왔고, 특별한 연구가 없어도 우리 사회에서 거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4에 제시된 연구결과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한국 사회가 IMF시대라는 엄청난 위기의 시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변동과 무관하게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확인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의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교육적 성취가 학업성취 그 자체만이 아닌, 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배려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을 가진 사회의 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안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과제는 분단된 조국 통일의 문제라고 본다. 6.25 전쟁을 경험하며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세대들은 이미 완전히 노년

기에 접어들었고, 현재 장년 세대만 해도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청소년 세대에서는 이웃나라 역사 이야기처럼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조차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국가보다 더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고, 아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통일비용 등을 남한이 감수해야 한다면 그렇게 피해보기는 싫다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다. 선진국이었던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국가 경제의 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간의 심리적인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이거나 구조적인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회문화적이거나 심리적인 통일일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새로운 적응을 시도하지만, 극단적으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터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이순형, 진미정, 2006) 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들은 미래 한국 사회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가 있다. 그림 15는 세대집단별 통일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였으며, 성인은 표집대상 청소년의 부모와 교사로 구성되었다.

그림 15를 보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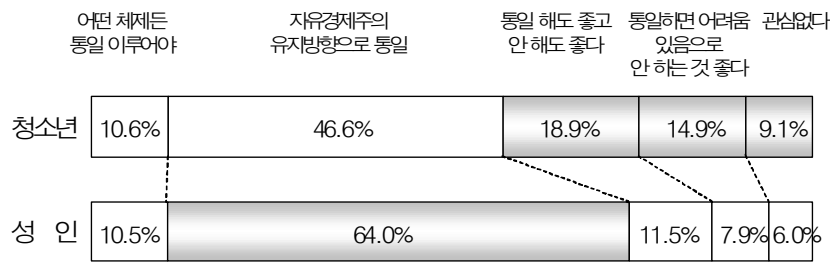


그림 15. 세대집단별 통일에 대한 견해

출처: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2006)

경제주의 유지 방향으로 통일에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50% 전후의 가장 높은 반응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훨씬 더 이러한 반응을 많이 하였다. 한편 통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라든가, 통일하면 어려움이 있음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 및 관심없다는 반응에서는 위와 대조적으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집단별 통일에 대한 견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국 현대사회의 성인들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과반수 이상으로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인과 달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통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통일하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성인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집단에서는 통일 문제가 아예 관심 밖이든지,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응답

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한 예로 북한에 대한 신뢰 의식을 남한 및 여러 외국에 대한 신뢰의식과 더불어 살펴보기로 한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과 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남한과 북한 및 그 외의 여러 외국에 대한 신뢰의식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림 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에 남한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신뢰보다 가장 높았으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즉 남한보다는 스위스 호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남한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신뢰 정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총 16개국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질문 하였을 때, 응답자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국가는 북한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청소년들 경우는 북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아프가니스탄, 소련 및 이라크에 대한 신뢰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떤 나라에 대한 신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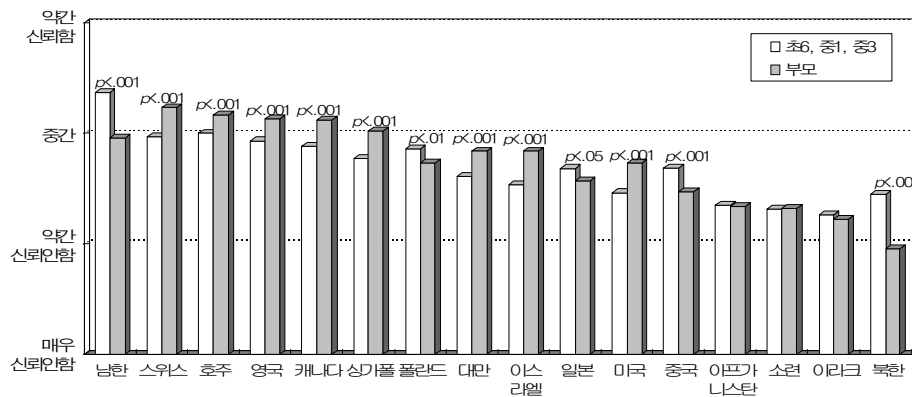


그림 16. 남한, 북한, 기타 외국에 대한 신뢰

출처: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2004)

북한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낮았다.

요약하면, 그림 16에서 전체적인 평균 반응에 토대해 볼 때 어떤 나라보다 남한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별 차이에 초점을 두면, 남한과 북한에 대한 신뢰의식에서 현저한 세대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집단은 남한을 어떤 나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부모 집단은 남한보다 여러 선진국들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 집단은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의 몇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 집단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최악의 나라로 인식하였다. 즉 현대 한국 사회의 성인 세대들은 남한에 대해서도 그리 탐탁해 하지 않는 점이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성인 세대들은 현재 청소년들의 부모집단임을 고려해 볼 때, 만약 6.25전쟁을 빠져리게 경험한 현재의 노인 세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훨씬 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해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국 청소년들이 외국보다 남한에 대해 높은 신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희망을 함축한다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지금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해진 풍토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하튼 우리 사회를 청소년들이 어떤 외국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성세대의 곤란했던 사회환경에 비해 청소년세대들은 성취된 사회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효능감을 갖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풍토가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관과 더불어 통일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새터민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이질적인 문화와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더불어

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내용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잘 수렴되어 학습이 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성취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적 성취 맥락에서 미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기타 과제들

이상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비전과 관련하여 남북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북한 통일문제 외에도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주제로서, 첫째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김오남, 2005) 또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과 재혼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김정민, 유안진, 2005; 황현주, 2005) 또는 부모자녀관계의 문제(임춘희, 2006)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가족문화와 관련하여 세대차(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와 관련된 분석도 더불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이 청소년의 학업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청소년 심신의 건전한 성장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청소년이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정이 제자리를 건전하게 지키도록 부모교육 또는 가정교육에까지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둘째, 사이버세계와 관련된 문제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다. 이제 미래 사회는 사이버세계와 별개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버세계에서의 소통이 활발한 시대로 되고 있다. 이제는 학업적응도 온라인 생활과 연결되어 논의(장근영, 남주희, 2006)될 정도로,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사이버가 활용되고 있다. 지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의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 이용을 통한 인간관계의 형성(류춘렬, 2006)을 통해서도 짐작되듯이, 현대인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이버세계는 자기표현의 장으로 밀착되어 있다. 또한 E-메일 등을 통한 효율적 소통, 그리고 사이버세계에서의 정보 검색과 상거래, 상담 등 새로운 분야에의 활용 등 사이버세계와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이버일탈 행동(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등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사이버윤리의 확보(김성벽, 2006)를 위한 교육적 노력도 요구된다.

이외에도 교육적 성취의 맥락에서 미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지면관계로 여기에서 모두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8)은 SWOT 접근을 통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약점과 강점, 그리고 위협과 기회의 시각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맺음말

현재의 사회문제를 바라보거나 미래 사회를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특정과제집중형 접근을 초월하는 문제해결형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

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특정과제집중형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과제 자체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해결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야말로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차원에서 요소들의 이해와 해결은 가장 기초가 된다.

그러나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집중하는데 그치면, 물론 심도있는 전문적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사회 전체 맥락 속에서 다양한 과제들 간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제해결형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련된 과제들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요소들을 합한 것이 전체일 수 없으며, 전체는 각각의 요소들을 합한 것보다 각 요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시너지까지 더해진 것이라는 시각에 토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해 볼 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가 개별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며,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소통의 망을 형성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

교육적 성취를 통해 한국 미래 사회를 구축해 나가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적 성취를 단편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 개인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예컨대 학부모들의 의식변화와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학교풍토조성 학교경영

교육과정 및 교사교육,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전통가치와 사회풍조 및 문화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유기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오목두기와 같은 다차원적 안목

이러한 문제해결형 접근방식의 시각을 갖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요즘같이 다양한 오락을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시절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모여 함께 한 놀이 중에 오목두기가 있다. 오목두기는 두 사람이 각각 한 수씩 바둑판 모양의 만나는 지점에 순서를 바꾸어 가며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5개로 일직선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가로로 다섯 개를 만들든, 세로로 다섯 개를 만들든, 사선으로 다섯 개를 만들든 5개만 먼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 게임을 하다보면 흥미로운 점은 예컨대 게임에 임하는 사람이 가로로 다섯 개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치열하게 움직이다가 좌절되어 세로로 다섯 개를 다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선으로 다섯 개가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다섯 개의 오목을 만들기 까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평면적 요소들에 집중하다보면 그러한 요소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형태에 대한 시각을 소홀하기 쉽다.

즉 오목두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2차원의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3차원의 입체적인 사고가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문제

가 해결되는 것은 2차원적인 사고의 단순 집합이 아니라, 3차원적인 구조에 대한 통합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적 성취를 통해 미래 한국사회를 비전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다차원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불끄기 방식이 아니라 사전 기획하기 방식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에 급급한 즉 불끄기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계속 소방차 역할 즉 불이 나고 난 뒤에 불을 끄러 다니는 식의 교육행정적 처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워낙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만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기획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일이 진행되기 보다는, 불붙는 건물에 소방차가 화재 진압하는 식으로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와 같이 긴급히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전 기획이 중요하다. 만약 도시가 제멋대로 형성된 이후에 도시계획을 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하려면 부딪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참으로 해결이 난해하다. 여기에 불을 끄면 저기에 불이 붙고, 저기에 불을 끄면 그 넘에 불이 붙는 식이다. 그러나 만약 도시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도시를 건설해 나가면 모든 일들의 진행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기획은 어떠한 철학에 토대하여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어떠한 방법을 활

용하며 어떠한 현실적인 결과들을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교육정책도 기획적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특정 정권의 일시적 정책으로 부침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동과 무관하게 한국이 장기적으로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기획하고, 그 틀 안에서 낱알의 요소들이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큰 틀이 구성되어 있어야만 각각의 이해집단들의 아우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 가능하고, 교육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망:

남겨진 숙제들

이 글에서 우리는 교육적 성취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 보았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정리를 해 보았으나, 여기에서 다룬 경험과학적 연구들이란 제한된 몇 개의 연구들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한국 사회의 매우 단편적인 부분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탐색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이 글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노력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단지 이 글에서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현재의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많은 작업들이 있다. 우선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핵심 주제들이 더욱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추

후의 연구 내용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 포함되었던 주제의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제로 지속적인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통찰력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토대하여, 사회 맥락에서 본 성취와 미래를 위한 시사점들을 새롭게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이 환경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물고기는 자기가 담겨있는 물에서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므로,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한 물에 살면 물고기도 오염되거나 기형이 되기도 하며,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는 죽을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특정 사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내면화되는데 만약 잘못된 이념이 세뇌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수질이 좋으면 물고기가 건강하듯이, 건강하고 바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을 학습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여건이 조성된다.

그런데 환경이 인간에게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시각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 즉 현재의 한국 사회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집착하기 보다는 우리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 창조의 자유의지와 효능감의 발취 및 인간의 능동적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성취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만이 갖는 독특한 토착심리적 측면들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대해 서양의 틀을 갖고 평가, 진단, 치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현상들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를 토착심리적 접근을 통해 통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부모의 양육행동(임정하, 2006, 임정하, 정옥분, 2004)이나 우리의식(장수연, 정옥분, 2005) 등,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마음들(조궁호, 2003; 최상진, 2000; 한덕웅, 2003)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민경환(2007)도 이제 한국의 심리학이 서양의 단순 모방에서 벗어나 창의적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성취를 바라보는 눈: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

한국 사회 내의 수많은 집단과 조직 내부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무엇에 토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정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한국 사회는 연고주의와 부정부패로 점철되어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5)고 지적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재정립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한 상자 속에 신선한 과일이 보관될 수 없음(Zimbardo, 2007)은 자명하다.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상자로 한국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골쇄신하는 처절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짧은 기간 내에 세계가 주목하는 성취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왔다.

직장에서 성인들의 경제적인 성취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도 그렇다. 그리고 모든 기반이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과는 놀라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야말로 한국 국민의 대단한 잠재력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외적이고 양적인 성과와 성취에 자족하고 자만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과거의 성취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성취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외적인 성취의 양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취의 질, 더 나아가서 성취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철저한 평가를 하고 또 변신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의 저력을 빛내온 기업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유착관계의 부정이 있어왔는지에 대한 폭로로 인해,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법조계 등에서 긴장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한 지역의 지검장과 관련된 사건이었으나 나중에는 검찰총장까지 연루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으며 그러한 부정의 이면에는 다분히 연고주의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에게 떡값을 준다든가, 상관에게 상납을 바치는 것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행이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의문없이 진행되어 오던 일들도, 보다 엄격한 기준과 새로운 잣대로 평가하였을 때,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즉 부정부패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썩은 상자 속에서는 사과가 썩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부정

부패가 수용될 수 없는 깨끗한 상자의 기준을 들이대었을 때는 썩은 사과가 당연하게 보관될 수 없고 폐기처분되게 된다. 이제 기업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인 성취가 기업윤리의 잣대로 평가받아,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또한 돈을 어떻게 썼느냐 등 다면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학업적인 성취도 마찬가지이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학력 자체가 목적이고 또한 자부심이 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대학 졸업하기를 기본으로 기대하고, 논밭을 팔아서라도 대학원 공부를 지원할 각오(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가 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의 덕분으로 석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엄청난 숫자로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계적으로도 낮은 문맹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몇 % 진학하며,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매년 몇 명으로 증가하고 있느냐는 양적인 지표보다는, 대학 졸업자가 어떠한 인재로 육성되었는지, 어떤 질의 석 박사학위 논문이 씌여졌고 무엇을 기여했느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업성취도 등수가 전 세계에서 1, 2위라는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제 양적 성취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것은 초 중등교육에서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별히 대학의 연구 윤리는 한국의 대학에서 정립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의 양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이제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서 연구과정의 윤리가 엄격히 평가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특정한 조직의 윤리 부재로만 비난하기보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다. 직접 부정 행위한 조직만 비난받아야 하고,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사회가 다 그런 것이라는 식의 묵인 또는 동조를 해 온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결백한가라는 질문을 해 보게 된다. 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만 유죄이고, 그런 사건에 휘말릴 기회가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인식의 저변에 흐르는 가정과 논리는 결코 다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사회 전반의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에 대해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집단효능감이 요구된다.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성취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들이 성취의 표면적이고 양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취의 내적 지향과 질적인 과정 그리고 나아가서 성취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껍질을 깨어나갈 때, 한국 사회의 미래가 더 큰 비전 속에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질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개발한 물건을 복제하면 연구개발비가 안 들기 때문에 당장은 싼값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그러한 모사품으로는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일정 단계에서는 아무

리 개발비가 많이 들어도 투자를 해야만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들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교육 경제 어떤 분야에서든 성취의 양만이 아니라 성취의 질, 나아가서는 성취의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임하는 수준까지, 성취와 관련된 시각에서의 안목이 더 높아져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가 아시아권에서의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모델로 부상하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양적 성취의 모형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할 준엄한 역사적 요구에 한국 사회는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미경, 이순형 (2007). 조기 해외 유학 중고생의 학교 적응과 관련변인 탐색.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4(3), 43~63.
- 김성벽 (2006).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윤리지수 개발 평가.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희 (2005).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활 성공요인 탐색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2(4), 57~97.
- 김오남 (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2(4), 99~119.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9a).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1999b).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 교육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1~31.
-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서울: 교육과학사.
- Yamagishi, T. (1998).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류춘렬 (200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경환 (2007). 학회장 취임사. 한국심리학회, 심리학회보, 128호, 7~8.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5,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신 (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41~1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85~125.
- 박영신, 김의철 (2000).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91~119.
- 박영신, 김의철 (2006a).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6b).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 박영신, 김의철 (예정).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의 관계.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박동현 (1999).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시사: 규제완화정책의 영향 분석과 안전효능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5(2), 161~193.
-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허희숙 (예정).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45~76.
- 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 안전교육의 방향 탐색: 작업자, 안전관리자, 공무원의 안전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4(1), 277~307.
- 박은실, 김의철, 박영신 (2007).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 38(3).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58.
- 이순형, 진미정 (2006).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3(3), 1~19.
- 임정하 (2006).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3(1), 135~151.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재혼가족에

-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3(3), 79~102.
- 장근영, 남주희 (2006).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수연, 정옥분 (2005). 한국 청소년의 나 의식과 우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2(2), 111~132.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의 사이버 이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4(4), 233~258.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허회숙, 김의철, 박영신 (2007).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 교사 연수에 대한 종단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2007년도 제 3차 학술대회 자료집, 189~197.
- 황현주 (2005).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에 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2(2), 57~74.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self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Helgesen, G.,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51(2), 318~353.
- Kim, U. & Park, Y. S. (2008).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Elsevier/Academic Press.
- Kim, U., Park, Y. S., Kwon, Y.,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4(3), Special Issues, 338~354.
- Kim, U., Yang, K. S., & Hwang, K. K. (Eds.)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Park, E. S. & Park, Y. S. (2006). Teachers' expectation and evaluation of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Paper presented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s educational miracle'. p.57.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2. 15

Yamagishi, T. (1998).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
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23

Zimbardo, P. G. (2007). *The lucifer effect*. New
York: Brockman Inc.

Korean societ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V):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for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and influence of educational achievement on Korean society and its future. Four major factors that associated with and influence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i.e., trust, efficacy beliefs, quality of life, and societal transformation) are reviewed. First, the role of educational achievement on establishing a basis for trust in Korean society is examined. By reviewing studies of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people and institution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rust in Korean society is outlined. Second, the role of efficacy belief in promoting educational achievement is examined.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efficacy, at the adolescent, adult and political levels is emphasized. In addition,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self-efficacy for teachers and parents is reviewed. Third, the role and influence of educational achievement on quality of life is outlined. Studies indicate that educational achiev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 pressure to achieve, however, can have negative impact on stress and mental health and support systems need to be developed to alleviate their impact. Fourth, the future and prospects for Korean society through educational achievement is discussed. Through education, the importance of bridging the divide with North Korea is an important agenda for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Finally,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providing direction for the future is discussed.

Key words : Korean society, educational achievement, quality of life, trust, collective efficacy, self-efficac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